

시론

푸르른 꿈을 심었던 날의 추억



박 남 기
광주교대 교수

4월말 봄비가 내리니 연구실 창밖에 토마토 모종을 심고 싶어 몸이 근질거린다. 그래서 3년 전의 가슴 아픈 추억을 들춰 보았다. 코로나19 기간에는 연구실에서 끼니를 간단히 해결하는 때가 많았다. 야채를 가꾸면 식사 때 싱싱한 초록을 먹을 수 있겠다 싶어 고향집 뒷밭에서 상추 몇 포기, 토마토 몇 개를 연구실 밖 화분에 심었다. 그러다가 욕심이 생겨서 고향집 다녀오는 길에 사평 오일장에서 방울토마토 모종을 사서 연구실 밖 큰 화분에 심었다. 그랬더니 가슴이 설레며 토마토가 열릴 여음이 기다려졌다. 내가 심은 것은 토마토 모종이 아니라, 가슴을 다시 뛰게 하는 날로 이어 가는 푸르른 꿈이었음을 알았다.

미안함이 늘 자리하고 있다. 원하는 연구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연구를 하다 보면 생각만큼 잘 진척이 되지 않아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럴 때는 하루에도 몇 번씩 연구실의 여러 식물들과 이야기를 나눈다. 이제는 창밖에 심어 놓은 토마토가 좋은 벗이다. 두어 달은 토마토와 더불어 연구에 더욱 매진할 수 있을 것 같다.
심었던 토마토 모종이 잘 자라 한 달 만에 토마토가 주렁주렁 열렸다. 가지마다 잔뜩 열린 토마토가 잘 자라려면 충분한 영양이 필요할 것 같아 고향 집에 가서 퇴비에 요소까지 섞어 가져왔다. 잘 자라기를 바라며 거름을 뿌리 근처에 수북이 덮어주었다. 금요일 출장을 갔다가 일요일 밤 늦은 시간에 도착해 토마토 안부가 궁금해 나가보았다. 그런데 이게 웬일! 불과 이틀 사이에 거의 말라 죽어가고 있었다. 주말에 비도 내렸으므로 물 부족 때문은 아니었음을 직감했다. 욕심을 내어 과하게 덮어주니 퇴비가 토마토를 죽게 한 것 같았다. 퇴비를 걷어내고 물을 주어 독성을 제거해보았지만 한 그루를 제외하고는 끝내 회생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
며칠 뒤 어머니를 불러 가서 말씀을 드렸더니 줄기가 약한 어린 토마토나 오이 등에는 두어 번 이상 떨어질 곳에 퇴비를 줘야 하고, 특히나 요소 비료는 원할 경우 조금만 주어야지 뿌리 위를 바로 덮으면 말라 죽는다고 말씀하셨다. 어머니 말씀을 통

해 무지한 내 욕심이 빚은 사고였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맥이 풀렸다.
우리의 삶에서도 한 번의 실수나 사고가 되돌릴 수 없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다. 치명적 실수나 사고는 살아가는 내내 영원한 회한으로, 트라우마로 남게 된다. 자녀들을 너무 보호하려 하지 말고 실수를 통해 배울 수 있게 지켜봐야 한다고 조언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부모들이 선뜻 그러하지 못하는 이유는 치명적 사고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리라. 일반적으로 말하는 실수와 사고는 예방주사처럼 오히려 성장에 보탬이 되는 회복가능한 것들일 것이다. 예전에 잘 길렀던 것은 운이 좋아서라 보다. 전문 농사꾼인 어머니도 농사를 망칠 때가 있는데 나 같은 왕초보야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얼마전 다시 모종을 사왔다. 말라버린 토마토 줄기는 뽑아내기 전에 사진으로 찍어 내 기억 속에 심었다. 그리고 절망을 뽑아낸 그 자리에 새 희망을 심었다. 다시 토마토가 열리는 여음을 기다릴 수 있게 됐다. 우리의 치명적 실수도 이처럼 뽑아낸 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지난 시간을 돌아보니 가슴 아픈 추억도 아름답다. 대학 연구실에서의 삶이 이제 종착역을 앞두고 있다. 천국을 나서야 하는 아담처럼 연구실을 떠나야 하는 불안감이 종종 나를 감싼다. 좋은 직업을 갖고 한평생 열심히 살아갈 수 있었던 것에 감사를 드리며 현직 마지막인 스승의 달 오월을 맞는다.

社說

내년 광주세계양궁대회 준비 미흡 기우에 그쳐야

2025 광주세계양궁선수권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광주시가 의지를 다지고 있지만 실상은 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시의회 서임석 의원(남구1)은 주경기장인 광주국제양궁장 주변 도로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도시철도 2호선 공사로 인해 평소에도 혼잡이 심한데다 2009년 울산에서 열린 양궁세계선수권과 비교했을 때 주차장도 현저히 부족하다고 한다. 울산대회 당시 주차장은 9천180㎡ 규모를 완비했던 것에 비해 광주는 2천157㎡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광주시는 교통, 시민참여 등 26개 분야의 경기 외적 지원 대책을 수립 중에 있다. 주차장은 국제양궁장 134대, 중앙1공원 확장지 107대, 인근 봉주초등학교 운동장 200대 등 모두 440면을 확보하고 있으며 추가로 염주체육관(1천474대 가능)을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도시철도 공사와 관련해선 대남대로와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 올해 말까지 95% 이상 포장을 완료할 예정으로 국비 미확보 시 시비를 투입, 마무리하겠다고 해명했다. 광주시는 올 1월 대

회지원단을 신설했으며 상징물 개발, 추진 전략 및 과제 마련, 숙박시설 확보, 장애인대회 수송차량 및 국비 확보 등 다양한 부문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강기정 시장은 지난 3월 국제양궁장을 살펴보고 필요한 시설 개선을 차질 없이 이행해 선수단과 관람객 편의를 최대한 높여달라고 지시했다.
2015하계유니버시아드, 2019세계수영선수권 등 메가 대회를 훌륭하게 치러내 국제스포츠 도시로서 위상을 확고히 한 광주다. 2025년 9월5일 개막하는 세계양궁선수권은 국제양궁장, 5·18민주광장 일원에서 선수와 임원 등 1천500여명이 참여해 기량을 겨룬다. 특히 장애인세계양궁선수권과 동시 개최는 국내 첫 사례다. 150만 시민의 열원과 7만여 등록장애인 애정이 이뤄낸 쾌거로, 지구촌의 시선이 집중되는 만큼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한다.
광주를 확실하게 알릴 수 있는 글로벌 축제의 장이다. 교통 문제 등 일체의 시비가 불거져선 안 된다. 시의회의 우려가 기우로 그칠 것으로 믿는다.

탄소중립 실현에 30조 투입하는 생명의 땅 전남

전남의 주력산업은 석유화학, 철강, 조선 등으로 전국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두 번째로 높다. 탄소중립녹색성장 10개년 기본계획은 대한민국 대표 선도모델을 구축하고자 한 강력한 다짐을 담았다. '탄소중립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생명의 땅 전남'이란 비전의 실천 여부가 기업과 도민들의 참여 여부에 달렸다.
2020년 탄소중립(Net-Zero) 실현을 위해 전남도는 2033년까지 30조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을 목표로 삼았다. 2018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 1천600만톤 가운데 670만톤을 줄이기로 했다. 수송 부문은 화석연료 사용 중심 수송체계 개편을 통해 친환경모빌리티 보급 확대 및 내연기관 자동차 수요관리 등을, 농축수산 부문은 저탄소 구조 전환, 탄소저장 및 자원순환 촉진, 에너지 효율 개선, 재생에너지 생산 등에 중점을 뒀다.
또한 철강·석유화학의 저탄소 전환 촉진, 에너지 효율 개선 및 자원순환 시스템 구축, 중소·벤처기업 대응역량 지원 등 산업 부문에 대한 관심을 강화한다. 선제적 기후위기 대응 기반 구축

을 위해선 기후위기에 안전한 전남 조성, 녹색성장 촉진, 국내외 교류·협력 강화, 탄소중립 실천 문화 조성 등에 나선다.
선택이 아닌 필수다. 미래세대를 위한 일이다. 도민 누구나 일상 생활에서 탄소배출을 줄이는 노력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전남도는 2021년 3월3일 '탄소 없는 건강한 미래, 청정 전남'을 비전으로 2050비전을 선포하고, 매년 탄소중립 주간을 운영,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있다. 2017년 제23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3)에서 창립한 탈석탄동맹(PPCA)에 공식 가입하는 등 탄소 없는 건강하고 깨끗한 세상을 만드는 데 전력하고 있다.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할 때다. 전남도는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 6개 부문 18대 과제를, 선제적인 기후위기 대응 기반과 관련해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 선도, 모두에게 공정하고 포용적인 탄소중립 등 6대 정책을 추진한다. 창의적이고 선도적인 사업을 앞세운 전남도의 탄소중립 행보에 전국 지자체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화난장



홍 인 화
前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

며칠 후면 수피아 홈커밍 데이다. 준비하는 동안 설레었다. 이렇게 가슴이 설레는 게 얼마 만인지 정말 감사한 일이다. 수피아를 졸업한지 벌써 40년이 됐다. 그리고 올해 환갑을 맞이했다. 60여 년 전 1962년 수피아 한덕선 화학 선생님께서 미국 작가 '오 헨리'의 '20년 후' (After 20 years)라는 단편을 소개했다.
"20년 후의 나의 모습을 바라보아야 한다. 먼 훗날의 꿈이 없으면 오늘의 생활이 바랄 수 없고 장래의 꿈을 가져야 한다." 이어, "화학은 물질의 변화만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답게 변화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라 했고, 배운 것은 실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때 말씀하신 선생님의 진심과 열정은 진리처럼 통하고 있다.
1963년 교정에 '낙우송'을 심었다. 그때 학생들(13회 졸업생)이 1983년, 2003년, 또 2023년에 만났다. 그 만남 속에서 오고가는 진 배들의 이야기는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졸업 후 20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모교를 찾고 모교사랑을

수피아 정신이여, 영원하라
실현했다. 그러하여 홈커밍데이 주관기를 탄생시켰다. 삶에 지치고 외롭고 그리울 때 우리의 안식처가 되는 로렐나무. 이 나무는 세상 속 시련을 겪다가 돌아올 학생들이 쉼터, 쉬면서 새 힘을 얻는 곳, 서로가 서로의 기도가 되는 나무다.
낙우송의 꽃말은 '남을 위한 삶'이다. 이걸 듣고 선생님에 대한 추억과 경의심이 남다른 게 다가왔다. 남을 위하는 삶을 몸소 실천하신 선생님들, 그들의 주변을 살피고 환대하는 삶의 자세를 보면서 세상이 참 아름답게 보였다. 언제 보아도 이쁜 교정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누리게 된 것은 큰 축복이다. 이 축복이 후배들에게도 면면히 이어져 선배들이 세운 훌륭하고 숭고한 뜻을 잘 이어갔으면 한다. 그게 수피아의 정신이 아닌가 싶다.
고아, 과부, 여성, 어린이들의 가족과 친구가 되고, 광주의 여성들과 어린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지 올해로 120년이 됐다. 수피아는 딸이라는 이유로 이름도 제대로 없을 때 1908년 미남장로교 선교회에서 설립한 미션 여학교다. 그리스도 정신에 입각해 운영돼온 사립학교다. 강제 한일 합병 이후 일제가 사립학교에 대한 탄압을 강화했으나, 이에 굴하지 않고 성경과 우리말을 가르치고 민족의식을 고양했다. 수피아 여학교 전교생이 3·1만세운동에 참여하고 신사참배를 하지 않겠다고 자진 폐교할 의식이 투철한 학교다. '광주3·1만세운동기념동산'도 수피아여학교 총동창회의 주도로 건립했고, 1995년 5월10일 홈커밍데이때 제막식을

했다.
2008년. 개교 100주년 기념행사로 3·1만세 재현행사를 가행했다. 재학생, 동문, 교사들과 광주의 각계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3·1만세운동의 민족정신을 널리 알리고 고취시켰다. 그날의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마치 당시 만세운동을 하던 심정으로 재현하면서 눈물을 쏟았다. 또 3·1만세 100주년인 2019년에는 '3·1만세 100주년추진위원회'를 만들어 3·1만세 재현 행사를 펼쳤다. 필자가 메가폰을 잡고 많은 광주시민들(수피아, 송일, 고려인, 시민단체, 교인)이 참여해 모두 함께 금남로1·2·3가를 가로질러 중앙로까지 내달리며 만세행사를 재현했다. 그야말로 완전 축제분위기가였다. 마치 100년 전 엄혹했던 시절에 만세운동을 했던 그 심정 그대로 재현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감격에 겨워 눈물을 쏟아냈다. 지금도 재현행사는 계속되고 있다. 광주의 3·1만세운동은 광주정신의 출발이다. 광주학생독립운동, 5·18 광주민주화운동, 6월 항쟁 등으로 이어졌고 이제 평화를 끼어든 채 통일 운동으로 승화해야 한다.
수피아는 여성들 스스로가 주인되는 세상을 꿈꾸게 했다. 여성 스스로 자기 목소리를 내고 사회적 발언을 하고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하라고 한다. 서로가 서로의 꿈이 되고, 미래가 되는 낙우송, 그리고 수피아의 거룩하고 가치있는 이야기는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수피아 정신이여, 영원하라.

독자투고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캠핑장은 겨울 못지않게 많은 이용객이 붐빈다.
포근한 햇살에 상쾌한 공기는 우리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긴장을 풀어 주지만, 이처럼 아름다운 계절에서도 캠핑에서의 안전은 결코 배제할 수 없다.
2022-2023년 전국 캠핑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145건이다. 이로 인해 2명이 사망하고 23명이 부상을 입었다. 화재가 발생하는 주된 원인으로는 전기적 요인을 꼽을 수 있다.
화재 뿐만 아니라 일산화탄소 중독, 화상, 상해 등 안전사고도 자주 발생하고 있어 몇 가지 안전 수칙을 숙지하고자 한다.
첫째, 텐트 내 소화기, 경보기, 손전등을 비치해야 한다. 소방차 1대의 위력을 가지고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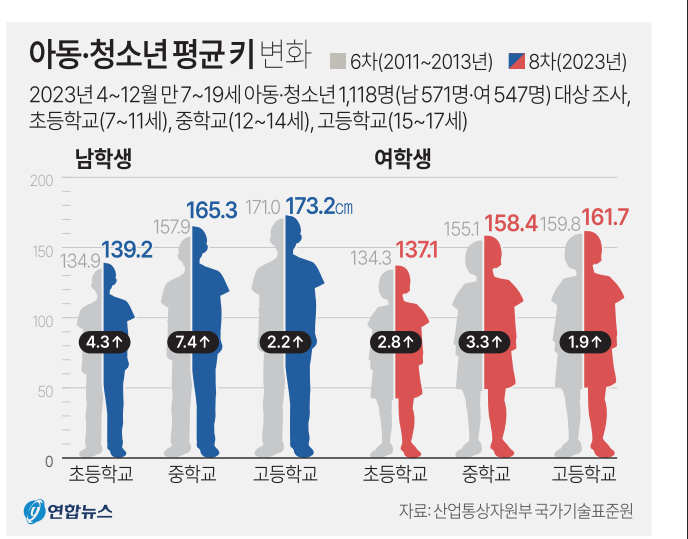
봄철 캠핑장 화재 등 안전사고 주의해야
스)시설은 인증된 제품으로 사용해야 한다. 봄은 따뜻하지만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큰 계절이기도 하다. 봄철 저녁에는 난방 제품 사용이 겨울철 못지않게 많기 때문에 전기 사용량이 높다. 그래서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제품들을 꽂고 사용하는 문어발식 콘센트를 사용하게 되는데 인증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할 시 과부하로 인해 화재의 위험이 더 커질 수 있다.
캠핑은 일상에 지친 사람들이 자연에서 진정한 휴식을 찾는 여가 중 하나인 만큼, 안전 수칙을 준수해 안전하고 즐거운 캠핑으로 진정한 휴식을 만끽하길 바란다.
(정은유·여수소방서 화확119구조대소방장)

\*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하고싶은 이야기·사진 등을 보내주세요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픽 뉴스

초등학생 평균 키, 10년 전보다 남 4.3cm·女 2.8cm 커졌다

10년 전보다 한국 초등학생(7-11세) 남자와 여자의 평균 키가 각각 4.3cm, 2.8cm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 고지기는 남자 14-15세, 여자 13-14세로 나타나 10년 전에 비해 남녀 모두 성장 속도가 2년 정도 앞당겨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월 '사이크로리아 성과 발표회'를 열고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원은 지난해 4-12월 한국의 만 7-19세 아동·청소년 1천118명(남 571명·여 547명)을 대상으로 인체지수를 조사



했다. 조사 결과 지난 6차 조사(2011-2013년) 때와 비교해 평균 키는 남녀 모두 증가해 체격이 커지는 20-84세 성인 대상 조사 결과와 일치하는 경향을 보였다. 초등학교 연령(7-11세)의 경우는 직전 조사보다 남자 4.3cm, 여자 2.8cm가 커졌다. 중학교 연령(12-14세)의 경우 남자 7.4cm, 여자 3.3cm, 고등학교 연령(15-17세)은 남자 2.2cm, 여자 1.9cm 커졌다.
성장 고지기는 6차 조사에 비해 남자는 16-17세에서 14-15세로, 여자는 15-16세에서 13-14세로 변화했다. 평균 몸무게는 남녀 모두 증가했다. 초등학교 연령의 몸무게는 남자 3.0kg, 여자 1.1kg 증가했고, 중학교 연령은 남자 5.1kg, 여자 1.3kg, 고등학교 연령은 남자 4.4kg, 여자 2.8kg 증가했다. /연합뉴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0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정치부 650-2030 사진부 650-2080 마케팅본부 650-2070
경제부 650-2050 논설실 650-2006 경영지원부 650-2011
사회부 650-2040 TV본부 650-2009 사업본부 650-2007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무국 650-2020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 10(가)10 /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0원